

지역 소식통

부안해양경찰, 3월~7월  
안개 해양사고 예방 만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9일, 3월부터 7월까지 해상에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해양환경 특성에 대비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다발해역 선제적 안전관리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는 매년 3월부터 7월 까지 국지성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짙은 안개로 인한 저시정으로 충돌·좌초·방향상실 등의 선박사고와 갯바위 또는 갯벌에서의 고립사고 등이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부안해양경찰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82건의 해상 선박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36.7%인 102건이 3월에서 7월 농무기에 발생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경찰, 군민 치안 의견  
설문조사 진행

부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범포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각 읍면동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 경찰 협력단체, 공동주택 등을 방문하는 직접조사와 경찰서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비대면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설문내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위험도와 생활 속 불안요인을 비롯한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범죄예방진단팀이 현장을 방문한 후 진단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부안군과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

박성수 서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불안요인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이 범죄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누에타운, 공모사업 선정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 과학문화서비스 질 한 단계 높일 기회 잡아

부안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2023년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전시개선 지원) 사업에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안누에타운은 2012년 누에 및 곤충과 관련한 자연사 전문과학관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도 과학관 본연의 기능 외에도 부안군 양잠산업의 홍보와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코로나19 전에는 연 10만 여명이 찾는 부안군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힌다.

전국에서 3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전북 부안군이 선정되어 군의 과학문화서비스 질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의 과학문화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과학문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공립과학관을 대상으로 내부시설물의 개선과 전시콘텐츠의 교체 및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안누에타운은 누에와 170년 전통의 양잠산업의 가치를 알릴 혁신적인 콘텐츠

구축과 전시물의 노후화를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내부 전시물 재정비를 통한 과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에 지원했고, 그 결과, 국내 유일의

누에 전문 과학관으로서 전시관 개선을 통한 관련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가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특성화가 잘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평가 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사업은 과기부와 부안군이 3월 중 국비 교부 후 본격 착수하게 되며, 누에의 성장과정과 나방으로 우화하는 생생한 모습을 UHD 4K멀티비전, 터치형 키오스크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로 체험하는 공간을 구축하며, 내년 초에는 새로운 모습의 부안누에타운을 전국의 관람객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 194명 신입생 새로운 출발

고창농촌개발대학 입학식, 농업인 소득향상 목표

고창군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입학식에는 심덕섭 대학장(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입학생 19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한국웃음치료연구소 조정호 원장을 초빙해 코로나 블루 극복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과정별 오리엔테이션과 학생자치회 구성을 위한 임원 선출 등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창농촌개발대학은 연 20회 교육의 정규과정으로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희망학과 4개과정을 개설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문이론과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개설과정으로 △약용작물과(31명)=약용작물을 활용한 상품개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치유자원과(38

명)=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시설원예과(54명)=시설원예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향상 평준화 △북분자과(7명)=고품질 북분자 생산 가공산업 활성화 등 농업인 소득향상을 목표로 운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해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고창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농촌개발대학은 2006년 첫 개교이후 28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재배기술 향상을 통해 북분자, 수박, 멜론 등 지역 농특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브랜드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복지환경국, 추진 사업 내용 설명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 청정 안전도시 기반 구축 등 핵심 정책 공유

정읍시가 9일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오선익 국장이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현안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순으로 진행했다.

오 국장은 6개 과의 주요 업무와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호국·보훈 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한 뒤 복지환경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올 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사회복지과 추진사업으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유냉장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여성가족과 추진사업으로 부모와 아동이 존중받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들의 보호와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

문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읍시 가족센터를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오세준 부안군산림조합장 당선인, "전국 제일의 복지" 포부 밝혀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부안군산림조합장에 당선된 오세준 당선인이 "부안군산림조합 조합원분들께서 저를 다시 한번 조합장으로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산림조합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리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더 튼튼한 산림조합, 조합원을 위한 조합, 미래를 준비하는 조합, 복지가 넘쳐나는 산림조합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당선인은 오직 조합원과 임업인을 위해 지난 8년간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림조합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부안지역의 청정산림에 풍요로

운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을 최고의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항상 낮은 자세로 조합원 한분한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제시한 공약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투명한 조합경영을 통해 전국 제일의 복지로 조합원 여러분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건강 지원 36개 지역특화사업 '호응'

정읍시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형 건강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내 26개소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및 교육은 치매 예방사업과 신체활동 사업, 민성질환 관리사업,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교육, 수면 교육 등 총 36개 사업이다.

시는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건강생활 문화 확산·실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뇌인지 강화 훈련을 위한 칠교놀이, 종이접기, 퍼즐 맞추기와 원예·공예



품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또 건강 체조 교실과 걷기 자조모임을 통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혈압·고지혈·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KTX 열차 예매, 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 주문 교육을 비롯해 장수사진 만들기, 낙상 예방 교실, 우울증 예방 교실 등을 추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